



'크루즈 패밀리: 뉴에이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어린이날 하루 관객 30만명 ‘5월 극장가’ 희망이 보인다

‘크루즈 패밀리’ 오프닝 흥행…19일 ‘분노의 질주’ 개봉

어린이날이었던 5일 극장 하루 관객이 지난해 추석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서면서 극장가가 활력을 되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5월 가족단위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힘을 갖춘 대작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5일 전체 극장 관객수는 32만6000여명이었다. 5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크루즈 패밀리: 뉴에이지’가 10만 2000여명을 동원하면서 올해 최고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고, ‘극장판 공순이: 장난감나라 대모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등 또 다른 애니메이션의 선전도 힘을 보탤다. 한국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3만5000여명),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미나리’(1만6000여명) 등도 꾸준히 관객을 모았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10월3일 38만9000여명 이후 처음으로 하루 관객이 30만명을 넘어서었다.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관객이 다시 급감하면서 극장가는 최근까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왔다. 이를 딛고 5일을 기점으로 극장가에 조금씩 활기가 돌면서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크루엘라’ 등 개봉 대기 중인 대작의 활약에도 기대가 쏠린다.

특히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전 세계 최초로 19일 한국에서 개봉한다. 시차로 인한 조기 개봉이 아니라 해외에서보다 먼저 한국 관객을 만나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배급사 측은 “한국 관객의 높은 방역의식과 극장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그동안 한국 관객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점도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국내 관객에게 낯익은 ‘101마리 달마시안’의 캐릭터 크루엘라를 내세운 엠마 스톤 주연 ‘크루엘라’도 엇비슷한 상황에 극장에 간판을 내건다.

극장가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인 19일이 공휴일이라는 점과 가족의 달이라는 시즌적 특성에 더욱 기대고 있다. 가족단위 관객이 대작과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극장을 찾아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건강이상설 딛고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개봉 앞둔 안성기

“노개런티? 시나리오가 날 움직였다”

5.18 광주주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중
풀리지않은 것들 젊은세대 알아야
의상·분장 담당 없어 열악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기억에 남더라



이른 오전 시간이어서인지 목소리는 다소 가리앉아 있었다. 향간에 떠돈 건강에 대한 우려가 떠올랐지만, 온라인 화상 인터뷰 카메라에 내비친 얼굴은 말끔했다. 이전의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다. “컨디션이 아주 좋다”며 활짝 웃는 표정에선 예의 주름의 매력이 고스란했다.

‘국민배우’ 안성기가 그렇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를 과시하며 6일 오전 취재진을 만났다. 5살의 나이에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한 뒤 64년을 영화 현장과 함께해온 안성기는 12일 개봉하는 ‘아들의 이름으로’(감독 이정국·제작 영화사 훈)를 새로운 주연작 목록에 올려놓는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 세월이 흐른 뒤 젊은 아들과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결의의 길에 나서는 인물을 연기했다. 그로서는 2007년 ‘화려한 휴가’에 이어 다시 한번 광주의 아픔을 전하게 됐다.

-또 다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을 선택했다. 부담이나 어려움은 없었나.
“영화가 저예산 작품이어서 현상이 그렇게 막 활기차게 돌아가지는 못했다. 전부 힘을 모아서 만든 영화라 좀 더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는 영화가 됐다.”

-최근 광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진행했다.

“작년에도 한 차례 시사회를 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니가 우시는 분들이 많았다. 행사 사회자도 계속 울면서 진행했다. 끝난 일이 아니구나, 슬픔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영화에도 실제 광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 당시 겪었던 분노 계시고, 그런 사실감도 조금 더 보태서 좋지 않았나 싶다.”

안성기는 5·18 당시 이장호 감독의



배우 안성기가 12일 개봉하는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에 주연과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이 “마음에 울림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옛나인필름

‘바람불어 좋은 날’을 촬영 중이었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다”는 그는 “광장이 비극적인, 우리에게서 힘든 이야기”라며 “지금이나 예전이나 아직도 아픔이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마 영화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책임감 말고도 그는 작품 자

체가 주는 울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작품의 시나리오와 내용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는 말했다.

“과거 자신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며 아들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뭉쳐진 감정이랄까.”

10억원이 채 되지 못하는 제작비 규모의 ‘초저예산’ 영화인 데다 출연료 한 톨 받지 않고 카메라 앞에 나선 까닭이다. 그는 출연료 대신 투자자로 나서 개봉

이후 흥행 성적에 따라 이를 보전받는 방식을 택했다.

“애초에 제작비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정국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아니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주 그냥 부드럽게 시작했다. 투자라고 하니 이상하긴 하지만, 같이 힘을 합친 거다. 의상이나 분장 담당도 없는 등 현장 상황이 상당히 열악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함께 한 사람들도 떠오르고, 오래 남을 것 같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도 인상적이다.
“영화적으로도 중요한 장치이다. 신경을 많이 썼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계속해왔다. 몸이 좀 무거워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 항상 운동을 해서 몸무게도 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1980년 이 사건이 아주 비극적인,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미안함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모두 반성도 하고 거기에 따른 용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 젊은 관객과도 소통하려는 그는 최근 ‘미나리’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에 축하를 보냈다. “영화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랑스럽고 고마워할 일이다. 뭐라고 말해도 모자랄 만큼 축하하고 싶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영화의 힘과 매력”이 자신을 64년 동안 현장에 있게 했다는 그는 “치매에 걸린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음 무대로 택했다고 밝혔다. “분명 역량이 있는 영화인”들과 함께 선 현재의 현장에서 “앞으로도 계속하게 할 것”, 그것이 영화임을 그는 역설했다.

안성기의 모습에서 한국영화의 또 다른 미래가 엿보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3815호(2020.12.24) (COM-2020-08-32243)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암 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직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사망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치안했고”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걱정 마세요
큰 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무배당 **백세시대** (갱신형)
꼭 하나 건강보험

노출형 진단비	금성심근경색 진단비	암생활비 (특약)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 ~ 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	---------------	--------------	---------------------	----------------------------------	--------------------------	------------	------------------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한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암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인 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츠2in1와이드그릴 상담원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20.12.01 ~ 2021.12.31)
• 전수 후 7일 이내, 최소 5만 이상 상품 구매(연보 제공)
• 배송은 상담원서 후 약 6주 소요(일 1회 한정)
(당시 시세를 저가 특가로 구매 시 지급 제한)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다른 경품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